

광주교육청 사립유치원 6곳 사기혐의 고발

30곳 감사 비리금액 30억원대 탈세 의혹 19곳 세무조사 의뢰 납품업체·유치원 리베이트 의혹

광주시교육청이 회계 비리와 세금 탈루 의혹이 짙은 광주 사립유치원들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세무당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감사과정에서 사립유치원 대다수가 특정 업체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물품인데도 유치원마다 단가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등 업자와 유치원간 불법 리베이트 수수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세무조사를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치원 비리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긴 자료를 확보한

수사·세무 당국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흐름 속에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조사결과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윤진 의원이 공개한 17개 시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와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교육청은 3월 초 광주 사립유치원 6곳을 사기 혐의로 관할 경찰청에 고발하는 강수를 뒀다.

시교육청은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감사를 진행한 30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세금 탈루 의혹이 드러난 19곳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이와 별개로 교육청 감사 인력 출입을 저지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한 유치원 11곳은 검찰청에 고발했다.

30개 유치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 금액은 30억원을 뛰어넘는다. 교육청 보조금 부당 수령액 21억5000만원, 학부모 반

환금 1억4000만원, 유치원 교비 반납 10억원이다.

경찰 고발된 유치원들은 학부모들에게 사기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치원 수업에 필요한 의복이나 교재 등 물품을 구입한다고 학부모에게 비용을 거뒀으나 실제로는 현 옷이나 중고 물품을 지급하는가 하면, 받은 돈보다 현저하게 값싼 물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의수업·체험 활동 비용을 학부모에게 받고 수업·체험 활동을 하지 않은 유치원들도 사기 혐의로 고발됐다. 일부 유치원들은 개당 400원에 우유를 납품받고도 많게는 최대 1200원씩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유치원 19곳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감사 과정에서 원장이나 설립자 또는 그의 가족 등에게 지급된 유치원 봉급, 설립자 또는 원장에게 불법적으로 지급된 유치원 시설 사용료에

따른 세금 누락 사실이 파악됐고 교육당국이 이를 관할 세무서에 넘겨 조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유치원과 업자간 거래가 있었는데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은 사례도 무더기로 확인돼 세금 탈루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정 업체가 사립유치원 물품 거래를 독식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감사에서 드러나면서 업자와 유치원간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도 나오고 있다.

교육당국은 일부 유치원의 경우 업자 이름으로 된 통장을 갖고 사용한 점, 동일한 물품인데도 유치원마다 단가 차이가 큰 점, 업체와의 거래 내역이 담긴 통장 등 자료 제출을 유치원 담당자가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관련 정황으로 제시하며 경찰청에 불법 리베이트 수수의혹 규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꽃샘추위에 움츠러든 발걸음 꽃샘추위가 찾아온 13일 오전 동백꽃이 만개한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앞 길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교에 4·19민주혁명역사관

830㎡ 3층 규모...20일 개관식

학생독립운동, 5·18민주화운동과 더불어 광주 3대 민중항쟁으로 꼽히는 4·19민주혁명을 기념하는 역사관이 건립된다.

4·19민주혁명기념사업회(기념사업회)는 "오는 20일 오후 3시 광주고등학교에서 4·19민주혁명역사관(역사관·사진) 개관식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시 동구 계림동 광주교 교내에서 들어서는 역사관은 총 예산 24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830㎡(251평) 3층 규모다. 광주 4·19 혁명 경과를 소개하는 '광주 4·19 그날의 일들', 참가 학교·참가 인물 조영 등 콘텐트로 구성됐다. 역사관은 기념사업회와 광주교 총동문회를 주축으로 지난 2014년 '4·19 민주혁명발상지 역사교육관 건립추진 위원회'가 결성되며 본격 추진됐다.

이병열(77) 기념사업회장은 "광주정신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좌익활동 경력자 298명 포함 포상 보류자 2만4천여명 재심사

국가보훈처 올 업무추진 계획 역대 최대 독립유공자 발굴

국가보훈처가 올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독립유공자를 발굴한다.

보훈처는 여성·학생 독립운동가에 대한 대대적 재평가와 포상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19년 업무추진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보훈처는 광복 후 좌익활동 경력자 298명을 포함한 독립유공자 포상 보류자 2만

4737명에 대해 재심사를 할 계획이다. 포상 보류자에 대해서는 개선된 독립유공자 심사기준을 적용해 수형 기준 미달자 3133명과 광복 후 좌익활동 경력자 298명 등을 재심사하기로 했다.

다만 보훈처는 '광복 후 행적 불분명자(사회주의 활동 경력자)도 포상할 수 있도록 했지만,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인물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한 올해 광복절(매년 8월15일)과 순국선열의 날(매년 11월17일)을 계기로 여성·의병 독립운동가 중 미포상자 1892명에 대해 집중적인 공적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또한 기존 독립유공 서훈자 1만5180명의 공적을 전수조사해 친일 행위 등이 확인되면 서훈을 취소할 방침이다. 심사가 미흡했던 1976년 이전 서훈자부터 단계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우선 검증 대상자 587명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오는 7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 여순감옥 모지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해 남북 공동유해발굴도 추진한다.

6·10만세운동 국가기념일 지정도 업무 계획에 포함됐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6 달뜨기 11:21
해질 18:39 달질 00:53

아침기온 쌀쌀

구름 많고 비바람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 낮겠다.

광주	구름많음	0/14	보성	구름많음	-3/12
목포	구름많음	3/13	순천	구름많음	1/14
여수	구름많음	2/12	영광	구름많음	-2/13
나주	구름많음	-4/14	진도	구름많음	3/13
완도	구름많음	3/14	전주	구름많음	-2/13
구례	구름많음	-3/14	군산	구름많음	-2/11
강진	구름많음	-1/14	남원	맑음	-4/13
해남	구름많음	-2/13	축산도	구름많음	5/14
장성	구름많음	-3/14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남서~서	0.5~1.5	남서~서	0.5~1.5
남부 앞바다	남서~서	1.0~2.0	남서~서	1.0~2.0
남해 앞바다	서~북서	0.5~1.0	남서~서	0.5~1.0
남해 서부 앞바다(동)	서~북서	1.0~2.0	남서~서	1.0~2.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남서~서	1.0~2.0	남서~서	1.0~2.0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2:19	07:08
---	19:11	
여수	07:44	01:44
	20:10	13:38

◇ 주간 날씨

15(금)	16(토)	17(일)	18(월)	19(화)	20(수)	21(목)
4/11	2/13	2/13	2/16	3/16	5/15	4/14

조선대 치매연구원, 치매 진단 인공지능 기술 개발

뇌영상 자료를 자동으로 분석해 알츠하이머병 진행 여부와 치매 진행단계를 판별해주는 인공지능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번 연구는 조선대 치매국책연구원(단장 이경호 교수)과 광주과학기술원 이보름 교수팀의 공동연구를 통해 이뤄졌다.

연구진에 따르면 치매환자를 포함한 65세 이상 한국인 491명을 대상으로 기능성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 뇌의 활동성을 분석하고 답답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해 알츠하이머병 치매 판별을 위한 두 가지 인공지능 원천기술

개발했다는 것이다. 이번엔 개발된 뇌영상 분석 인공지능은 정상인과 가벼운 인지장애 증상을 보이는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구별해내는 정확도가 94.2%에 이르며, 신경과 전문의에 의해 진단된 치매등급(CDR)을 기준으로 할 때 치매등급 판별 정확도는 92.3%에 이른다.

조선대 치매국책연구원 이경호 단장은 "조만간 임상실험을 통해 유효성 검증을 거칠 예정이며 빠르면 1년 이내 일선 의료현장에 적용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서해해경 가거도 헬기사고 순직 경찰관 4주기 추모식

신안군 가거도 헬기사고 순직 경찰관 4인에 대한 4주기 추모식이 13일 오전 11시 여수시 해경교육원 총합탑 앞에서 거행됐다. 이날 추모식은 서해지방해양경찰 주관으로 순직 해양경찰관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투철한 사명감을 기리기 위해 열렸다. 서해해경 소속 경찰관 등 20여명이 참

석해 화와 및 분향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고(故) 최승호, 백동흙, 박근수, 장용훈 해양경찰관은 2015년 3월 13일 밤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에서 당시 7세의 어린이가 맹장 증세로 위급하다는 응급 구조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기상 불량으로 헬기가 추락하며 순직했다. /목포=김병관 기자 dss6116@

한국형 연금 발전소 분양

(태양)

A 타입 식용달팽이 사육장(건물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B 타입 미래형 100KW 550만원(예상) 현금투자대비(년 40% 수익가능)
최단 2년6개월 자금회수가능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에너지관리공단 80% 용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2018. 5. 1. 대통령령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전·답 가능)

모듈·LG·한화큐셀(단결정)
인버터·ABB(이태리)·카고(독일)

분양지역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남 신북면 잔여분 5기
- 영광 흥농 잔여분 3기

2019년 8~10월 준공예정

- 한전과 20년 장기 계약 안정적 투자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부지 매입합니다(전·답가능)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지!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 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87-8

전국대표 ☎ 1588-1543 · 010-3645-1479